

KBO리그 144경기 대장정 돌입

이제부터 진검승부

시범경기 부진했던 크론, 정규시즌 개막하자 '맹타' 두산, 시범경기 1승으로 끝냈지만 개막 2연전 승리

몸풀기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승부다. 시범경기로 예열을 마친 프로야구는 지난 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44경기 대장정에 돌입했다. 컨디션 조절을 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 올리는 데 집중했던 시범경기는 있어도 좋다. 본 게임에 돌입하자 우려를 샀던 이들이 서서히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범경기 내내 부진했던 케빈 크론(SSG 랜더스)은 정규시즌 시작과 함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KBO리그에 처음 입성한 크론은 시범경기서 타율 0.176(3타수 6안타)에 그쳤다. 홈런 2개를 쳤지만 볼넷 3개를 고르는 동안 삼진 9개를 당하는 등 신뢰를 주지 못했다. 그러나 2일 NC 다이노스와 개막전부터 멀티 히트를 때려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날날엔 시즌 첫 홈런까지 날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시범경기에서 타율 0.182(33타수 6안타)로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아시엘 푸이그(키움 히어로즈)도 시즌 출발이 나쁘지 않다. 개막 2연전에서 2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냈고, 볼넷은 3개를 골라내 선구안까지 증명했다. 삼진은 1개만 당했다.

시범경기 동안 우려를 샀던 팀 중 하나인 두산 베어스도 개막 2연승으로 정규시즌을 기분 좋게 열었다. 두산은 올해 시범경기에서 12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승만 거두고 8패(3무)를 당하며 고전했다. 매년 내부 프리에이전트(FA)가 빠져나가며 전력 약화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두산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던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두산은 한화 이글스와 두 경기를 모두 잡으며 승리로 시즌 시작을 알렸다.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부상을 당했던 '거포' 양석환도 개막전부터 홈런을 신고했고, 4번 타자 김재환도 미수결이 홈런을 날렸다. 토종 에이스 최원준도 6이닝 무실점 패투로 첫 단추를 잘 꿴다. 모두가 반등에 성공한 건 아니다. 오히려 시범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뒤 정규시즌에서 집중 견제 속 어려움을 겪는 선수도 있다. 시범경기 타율 1위(0.432)로 돌풍을 일으켰던 '북기' 김도영(KIA 타이거즈)은 LG 트윈스와 개막 2연전에서 9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올해 12차례 시범경기에 나섰다 김도영이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던 건 단 1경기뿐이다. 그만큼 시범경기와는 다른 정규시즌의 부담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뉴시스



프로야구단 KT 위즈 퓨처스팀이 5일 익산야구장에서 퓨처스리그 홈경기 개막전을 개최했다. 익산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KT 위즈 프로야구단 퓨처스팀은 이날 NC다이노스와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10월 7일까지 올 시즌 18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퓨처스리그 START... KT위즈 퓨처스, NC와 개막전

익산서 홈경기... 올 시즌 115개 경기

프로야구단 KT 위즈 퓨처스팀이 5일 익산야구장에서 퓨처스리그 홈경기 개막전을 개최했다. 익산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KT 위즈 프로야구단 퓨처스팀은 이날 NC다이노스와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10월 7일까지 올 시즌 18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퓨처스팀은 올 시즌 홈경기 58개, 원정 57개로 총 115개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그간 조명시설이 미약해 퓨처스리그 야간경기를 인공에 있는 군산 야구장에서 매년 경기를 진행했지만, 조명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올해부터는 야간경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야간 불거리 제공할 뿐 아니라 익산야구장으로 원정 오는 팀은 익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오택립 익산시장 권한대행,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오택립 권한대행이 개막 선언을 하며 시즌 개막을

알렸다. 또한 개막식 전 유재구 시의장과 오택립 권한대행이 시구·시타자로 나서 승리를 기원했다. KT구단 관계자는 "앞으로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이벤트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익산에서 열리는 홈경기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 경기를 즐기며 선수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우크라이나 선수 돕습니다

대한근대5종연맹, 기부금 2600여만원 기부
식료품·구호물품 등 대피생활 지원 등에 쓰여

대한근대5종연맹(회장 김현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인의 근대5종인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했다. 연맹은 4일 우크라이나 근대5종인들이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훈련하는 걸 돕기 위해 2만 유로(약 2600만원)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상당수 우크라이나 근대5종 선수들과 가족들은 폴란드, 헝가리 등 인근 국가에 피신해 국제연맹, 유럽연맹 등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준 회장이 지난해 10월 회장으로 취임한 아시아근대5종연맹도 1만 유로(약 1300만원)를 기부한다. 이번 성금은 식료품 구호물품 등의 대피생활 지원과 훈련비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전웅태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근대5종 국가대표 선수들도 우크라이나 근대5종 선수 지원을 위해 소정의 성금을 모금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프로스포츠인 심리상담 무료 제공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 재정 지원
K리그·KBO 소속 선수·지도자 등
불안 외 멘탈코칭 상담도 제공받아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프로스포츠 경기인에게 전문 스포츠 심리상담 및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단체종목(K리그, KBO, KBL, WKBL, KOVO) 소속 선수·지도자·심판과 개인종목(KPGA, KLPGA) 소속 회원·경기위원이다. 사업의 목적은 7개 프로단체 소속 선수·지

도자·심판을 대상으로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프로 선수들이 경력을 지속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선수들은 무료 심리상담을 통해 프로 생활에서 겪는 압박,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고충, 남에게 선풍 터놓기 어려운 고민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다. 또한 구단으로부터 멘탈 코칭과 심리적 지원을 받는 선수들에 비해 심리상담 기회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지도자 및 심판에게도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경기인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한다. 전년도 사업을 통해 41명의 프로스포츠 경기인 총 316회 개인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인

당 약 7.7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지난해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스포츠 특화 상담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에는 스포츠 분야 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심리상담사도 다수 위촉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기인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대인관계 외에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 멘탈코칭에 관한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은 1회기 당 60분이며, 대면 및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기인은 최대 10회기까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10회기를 마친 내담자에 대해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상담 연장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상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전적으로 비밀로 보장되며, 협회·연맹·구단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남원시

눈부신 녹음아래 마음까지 설레
여기는 남원입니다.

3.2.1. | 1.2.3